

## 12·3 불법 게임 1년...내란의 밤 광주는 깨어 있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3 불법 게임 1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반헌법적 게임 상황 당시 광주의 긴박했던 대응 과정을 공개하며, 이를 도시발전의 동력으로 확장하겠다고 2일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7분 게임이 선포되던 순간, 광주는 어떤 곳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게임 선포 10여분 만에 강기정 시장과 강기정 시장의 지시로 비상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되고, 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시청으로 집결했다.

게임 선포 30여분 뒤인 밤 11시에는 첫 대책회의를 개최해 비상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했다.

광주시는 이어 12월 4일 0시11분 게임 선포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시장,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학계, 종교계 등 광주지역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헌법수호 비상게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긴급하게 마련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반헌법적 게임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군·경에는 시민 보호를, 공직자들에게는 시민의 일상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결의했다.

전국에서 이같이 신속 대응에 나선 도시는 광주가 유일했다. 광주시는 이를 '오월의 DNA'가 발현된 순간으로 평가했다.

국회의 게임 해제 의결과 대통령실의 오전 4시30분 게임 해제 발표 이후에도 광주 대응은 계속됐다.

날이 밝은 4일 오전 9시, 시민들은 5·18 민주광장으로 모여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비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광주시민총결기대회 모습.

광주시, 긴박했던 대응과정 공개... 5·18정신 등 '오월DNA' 발현

'빛의 혁명' 기억하며 12일까지 민주주의 주간 운영...제도 개선 앞장

상상향을 공유한 뒤 국회를 찾아 대통령 등 각 퇴진과 시민 일상 안전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후 공공기관장 회의, 5·18 단체 간담회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지역 상황을 점검했고, 민생·안전을 책임질 '지역민생안전 대책반'을 구성해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광주시는 지난 1년 동안 '단단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해서 제안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의 무리한 게임을 방지할 '국회사전동의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입법화 등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행

도했다.

시민들 역시 '광주의 민주적 연대' 힘을 보여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시민들은 추운 겨울 금남로에서 매일 촛불을 밝히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보여줬다. 극우 집회가 예고되었을 때 광주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할 수는 없다"며 불허 조치를 내렸다.

그 현장에서 시민들은 5·18의 대동정신을 실천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떡국과 핫팩을 나누고, 시민들의 '선결제' 릴레이가 이어졌다. 광주시는 광장 주변 편의시설, 화장실, 나눔부스를 안내해 연대 공간을 행

정이 함께 지켜냈다.

광주시는 이러한 시민 대응을 '빛의 혁명'으로 기억하며,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12일까지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운영한다. 또 게임 저지 1년이 되는 3일 광주공동체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강기정 시장장은 "12·3 비상게임을 통해 우리는 오월정신의 생명력을 다시 확인했다"며 "망월묘역을 '빛의혁명 발원지'로 조성하고, 당시 연대의 중심이었던 적십자병원을 리모델링해 오월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입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 전남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

식품소재·천연물·미생물 등 3대 핵심 분야서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선정 분야는 식품소재, 천연물, 미생물 등 3대 핵심 분야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축산물과 미생물·천연물 같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핵심산업이다.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1조2000억 달러에서 2031년 3조9000억 달러로 3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연평균 7% 가깝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소재, 천연물, 미생물 등 핵심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국의 18.2%를 차지하는 농지 면적, 농업 생산량 19.0%, 친환경 인증 면적 50.3%, 아열대작물 59.0%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풍부하고 다변화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토대로 전남형 그린바이오 혁신 모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나누는 식품소



재, 장흥은 천연물, 순천·곡성은 미생물을 3대 축으로 삼아 그린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문에서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전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글로벌 그린바이오산업의 대표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염선호 기자

## "2028년 G20 정상회의 전남 유치 준비하자"

김영록 도지사, 실국 정책회의서 주문

김영록 전남지사(사진)는 2일 "202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전남 유치를 준비하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청사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에서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현할 수 없다. 목표를 원대하게 품어 노력하면 그 과정에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달성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확정됐으며, 대통령께서 '지방도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며 "인공지능(AI) 에너지 수도 전남, 기후변화 전남 등을 추진하면서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만큼 G20 정상회의 유치에도 도전하자"고 덧붙였다.



붙였다. 김 지사는 "인프라 부족이 문제인데 경주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이 부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전문의 등 저문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준비해서 유치전에 뛰어든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대책 보강·강화 방안, 국내 최초 관광도로로 지정된 여수-고흥 백리섬섬길의 남해안 연장 등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승원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광주·전남 최초로 시행한 '청년 활력소득' 3분기와 4분기 지급을 모두 완료하며 지역 청년의 공공 활동 참여와 지역 정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광주·전남 최초로 청년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한 '2025년 청년 활력소득 지원사업'의 3분기와 4분기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 874명의 24세 청년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만족도 조사에서 99%의 긍정 평가를 확인하는 등 제도

## 나주시, 광주·전남 최초 '청년 활력소득' 지급 완료

24세 청년 874명에 30만 원 지급...만족도 99%·정착 의사 84%

가 청년들의 시정 관심도, 지역 소속감, 미래 준비 의지를 크게 높인 성과를 거뒀다.

청년 활력소득은 지역 행사 참여, 봉사 활동, SNS 정책홍보,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 지역사회 공공기여 활동을 수행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30만 원을 지급하는 참여형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3분기에는 495명, 4분기에는 379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총 874명의 청년에게 모바일 나누사랑상품권 30만 원씩 지급됐다.

대상은 1년 이상 나주에 거주하는 2001년생 청년으로 활동 실적 제출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나주시는 3분기 지급 대상자 49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31명 중 99%가 '만족 또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만족' 비율은 96%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호응이 확인됐다.

청년 활력소득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고 경제적 여유 확대, 자기 계발 기회 증가, 지역 소속감 향상, 정서적 안정감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시정 관심도는 응답자의 89%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지역 정착 의사 역시 84%가 "증가했다"고 답해 사업의 실질적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나주/이명열 기자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섭(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